

‘아다와 썰라는 어떤 교회였을까?’

d spiritual things)를, 그리고 ‘썰라’는 자연적인 것들의 어머니(*the mother of its natural things*)를 의미합니다.

아다와 썰라는 어떤 교회였을까?

¹⁹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썰라였더라 ²⁰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²¹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²²썰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창 4:19-22)

오늘 본문의 절별 속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19절, 가인으로부터 순서상 여섯 번째인 ‘라멕’은 황폐함(*vastation*)을 의미합니다. 더이상 어떤 신앙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을 때의 상태이지요. 그의 ‘두 아내’는 일종의 새로운 교회의 도래(*the rise of a new church*)를 의미하는데, ‘아다’는 그 교회의 천적(天的) 영적인 것들의 어머니(*the mother of its celestial an*

20절, ‘아다’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천적 영적인 것들의 어머니를,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cattle*)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는 사랑에 속한 거룩한 것들과 그로 말미암는 천적 선들에 관한 교리를(*doctrine concerning the holy things of love, and the goods thence derived, which are celestial*) 의미합니다.

21절,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는 같은 교회 영적인 것들에 관한 교리(*the doctrine of the spiritual things of the same church*)를,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은 신앙의 진리들과 선들(*the truths and goods of faith*)을 의미합니다.

22절, ‘썰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새 교회의 자연적인 것들의 어머니를, ‘두발가인,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는 자연적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the doctrine of natural good and truth*)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구리’(놋쇠, 황동, *b*

‘아다와 썰라는 어떤 교회였을까?’

rass)는 자연적 선을, ‘쇠’는 자연적 진리를 각각 의미합니다. ‘나아마, 두발가인의 누이’는 비슷한 교회, 즉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자연적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a similar church, or the doctrine of natural good and truth outside of that church*)를 의미합니다.

뜻이 좀 복잡하며 어려우시죠? 네, 최대한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는 한마디로, 라멕의 때에 일으키신 아다와 썰라라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라멕의 때에 아다와 썰라를 일으키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해, 아무리 교회가 황폐해져도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니 낙심치 말고 겸손히 모두 제 자리를 지키자 하는 권면을 받았습시다.

오늘은 그 두 번째, 그렇다면 그런 라멕의 때에 일으키시는 새 교회, 아다와 썰라라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였을까?, 어떤 신앙, 어떤 교리를 가진 교회였을까?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다와 썰라에 관하여 앞의 관련 속 뜻을 보니, 아다는 주님이 일으키시는 새 교회의 천적 영적인 것들의 어머니이고, 썰라는 자연적인 것들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즉 새 교회는 세 가지, 천적, 영적 그리고 자연적인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 세 가지, 곧 천적, 영적이라는 게 뭔지, 그리고 자연적이라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 오늘의 하이라이트이지 싶습니다.

주님의 빛을 구합니다.

교회의 구조를 비롯, 사람이나 영계의 구조 등 이 모든 피조 세계 각각의 구조는 조물주의 어떠한 심으로 말미암으며, 고스란히 조물주의 속성을 반영하게 되는데요, 이는 마치 어떤 작가의 작품을 보면 대략 그 작가에 대하여 알 수 있는 것이나 혹은 세상 자녀가 그 부모를 닮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다만 피조물은 그 속성상 조물주에 대하여 조물주가 오픈하시는 만큼 밖에는 조물주에 대하여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또한 너무나 당연한 것이며, 그래서 지금까지 조물주이신 주님이 자신을 오픈, 곧 계시하여 주신 사실들을 가지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시간, 우리 피조물의

이해와 언어로 정리,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아다와 쉴라라는 새 교회가 어떤 교회이며, 그래서 '아, 주님이 원하시는 지상의 교회가 저런 모습이었구나. 주님이 귀히 여기시며 참 사랑하셨던 태고교회가 저런 모습이었구나!' 하는, 어느 정도의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싶습니다.

참고로, 방금 '조물주가 오픈하시는 만큼 밖에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는 '조물주 마음대로'라는 뉘앙스가 살짝 느껴지지만 그런 것보다는, 조물주이신 우리 주님은 철저히 피조물에게 맞추시는, 즉 피조물의 역량에 맞춰 자신을 계시하시는, 그런 참으로 인격적인 신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역량이 요만큼이면 우리는 주님을 요만큼 밖에 알 수 없는 반면, 우리 역량이 이만큼이면 또한 우리는 주님을 이만큼 알도록 허용되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바닷물을 누구는 바가지로 떠 담지만, 누구는 거대한 도크로 담아 가두는 것과 같습니다.

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삼위(三位)가 일체(一體)이신 분입니다. 이는 우리가 잘 아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이 삼위일체를 신학교에 가면 조직신학 같은 과목을 통해 아주 깊이, 수많은 유명 신학자들의 견해와 입장들을 비교해 가며, 복잡하게 배웁니다만... 저는 오늘 쉽게, 그냥 우리 사람에 비유하여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 또한 주님의 작품이므로 우리 안에 제작자이신 주님의 속성이 반영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영과 육으로 되어 있으며, 활동이라는 것을 합니다. 여기에 세 가지 요소가 들어있지요. 영, 곧 속 사람, 육, 곧 겉 사람, 그리고 활동, 움직임, 액션입니다!

주님도 이와 같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주님의 이런 세 가지가 하나로 계신 속성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이렇게 지으신 것이며, 천국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주님과 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님에 관한 영광의 서술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영, 곧 속 사람에 해당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신성(神性, *the Divine*)으로, 주님의 육, 곧 겉 사람에 해당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4:19-22, AC.405-426

‘아다와 쉘라는 어떤 교회였을까?’

스도’께서 신적 인성(神의 人性, *the Divine Human*)으로, 그리고 활동에 해당하는 ‘성령’(聖靈, *the Holy Spirit, the Divine Proceeding*)께서 주님으로부터 발출(發出, *proceeding*) 되는 신적 진리(*the Divine Truth*)로, 이렇게 세 요소가 한 분 주님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주님의 신성은 선과 진리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이 사실과 깊은 관련이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주님의 신성에 관한 호칭으로, ‘여호와’는 선, ‘하나님’은 진리에 관한 호칭이십니다. 한편,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의 신적 인성에 관한 호칭으로, ‘예수’는 선, ‘그리스도’는 진리에 관한 호칭이십니다

그래서 가령, 창세기 1장에서는 왜 ‘하나님’만,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왜 ‘여호와’만 나오는지를 비롯, 말씀 전체에 왜 어떤 때는 이렇게, 또 다른 데서는 저렇게 호칭하실까가 다 이런 연유에 따른 것입니다.

네, 주님에 관한 이런 이해는 모든 근본적인 것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왜 우리를 겉 사람, 속 사람, 곧 육과 영으로 지으시고, 또 활동하게

하셨는지? 왜 교회를, 왜 영계를 그런 구조로 지으셨는지 등등 말이지요!

참고로, 여기 겉 사람, 속 사람은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요, 하나는, 단지 영과 육으로만 말하는 경우로서, 이 경우는 영이 속 사람, 육이 겉 사람입니다. 다른 하나, 영으로만 말하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영의 겉을 겉 사람, 영의 속을 속 사람이라고 합니다. 영도 겉과 속이 있다는 게 신기하시죠? 네, 영도 겉과 속이 있습니다. 영의 구조 중 육과 붙어 있어야 하는 데가 영의 겉이요, 겉이 있으면 또 속이 있으므로 영도 속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사후 드러나게 되는 구조인데요, 사후 첫째 상태는 영의 겉으로 있는 상태이지만, 사후 둘째 상태는 영의 속, 곧 본 모습으로 있는 상태, 본 모습이 드러나는 상태입니다. 이때 영의 겉은 휴면 상태에 들어갑니다. 이후 이 모습으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게 되며, 거기서 영원히 지내게 되지요.

이와 관련,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영의 겉으로 있을 때는 생전의 모든 요소가 아직 남아있는 때로서, 이때는 생전에 알고 지냈던 사람들, 부부간, 부모 자식간 및 혈연, 지인 등 서로 알아보며, 서로 만나 무척 반

‘아다와 썰라는 어떤 교회였을까?’

가워합니다. 생전에 부부였던 사람들은 저마다 다르지만 잠깐 같이 지내기도 하지요. 그러나 점점 그 사람의 영의 본 모습이 영글어감에 따라 영의 속 상태인 속 사람의 모습이 전면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영의 끝 상태는 점점 휴면 상태로 들어갑니다. 천국이나 지옥이나 곁과 속이 하나로 살아가는 상태인데,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바로 이런 상태여서 천국 또는 지옥으로 갈 준비가 다 되었고, 이후 천국 갈 사람한테는 세 번째 상태인 천국 오리엔테이션 장소로, 지옥 갈 사람한테는 바로 지옥문이 열립니다.

이 두 번째 상태, 곧 영의 속 상태가 되면 더이상 사람들은 나를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피차 다른 사람의 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인데, 피차 영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이 상태에서는 비록 가족 간이 있어도 서로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 혈연지간은 지상 생활로 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후에는 전부 뿔뿔이 흩어지며, 천국 또는 지옥에서 전혀 새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무슨 조상을 잘 모신다느니 부모님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계신다느니 하는 것은 사람의 영과 사후 상태 등에 관해 잘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 살 때 사고방식으로 생

각하는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이 사람의 영의 구조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뭘야,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지, 뭘, 그렇게 복잡해? 성경에 그런 얘기가 어딴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네, 맞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맞습니다. 천국 갑니다! 다만, 예수를 잘 믿어 그 속 사람이 천국 삶에 맞게 잘 준비된 사람이라야 갑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 일상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거의 없이 오히려 자기 사랑, 세상 사랑의 삶을 사셨다면... 이런 분은 좀... 안전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사후 그 본 모습, 영의 속 사람 모습이 어떤 모습일지가 말이지요...

아멘, 할렐루야!

천국은 두 나라, 천적 나라, 영적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신성인 선과 진리 중 특별히 선에 끌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맞는 분들이며, 주님을 신앙하는 것도 사랑으로 하시는 분들입니다. 가슴으로

‘아다와 썰라는 어떤 교회였을까?’

신앙하시는 분들이시지요. 천진난만한 어린아이 같은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천국이 바로 천적 천국입니다. 이런 분들은 두 천국 중 천적 나라의 신성을 더 받아들이시는 분들로서, 이런 분들을 가리켜 천적이라 합니다. 삼층천이며, 가장 내적 천국입니다.

반면, 이번엔 주님의 신성 중 특별히 진리에 끌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주님을 신앙하는 것이 자신들에게 맞으며, 주님 사랑도 신앙을 통해서 하시는 분들입니다. 머리로 신앙하시는 분들입니다. 지적이시며, 배운 게 많아 보이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천국을 가리켜 영적 나라라 하며, 이분들은 두 천국 중 특별히 영적 나라의 신성을 더 잘 받아들이십니다. 이분들을 가리켜서는 영적이라 합니다. 이층천이며, 중간 천국입니다.

참고로, ‘머리로 신앙한다’는 것이 꼭 열등하거나 저급하고 나쁜 것은 아닙니다. 타고나길 그렇게 타고난 것이며, 비록 주님을 처음엔 머리로 알지만 그 지식으로 나중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주님은 천적인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의지(*will*) 안으로 직접 들어가시지

만, 영적인 사람들한테는 그들의 이해(*understanding*)를 거쳐 간접적으로 들어가십니다.

생전에 주님을 몰랐지만 선한 삶을 사셨거나 주님을 알았어도 특별히 주님 오리엔티드된 삶엔 별 관심 없이 그저 성실한 삶을 사신 분들은 사후 셋째 상태인 오리엔테이션 때, 주님을 영접하고, 일층천인 자연적 천국으로 가십니다. 주로 아프리카 사람들이 많이 가는 천국입니다.

교회를 지상에 구현된 천국이라 하는 이유는, 미리 지상에서 교회를 통해 천국과,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님과 결합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며, 이렇게 천국이 크게 세 종류이기 때문에, 지상의 어떤 교회가 참된 교회라면, 그 교회는 오늘 본문의 ‘아다와 썰라’처럼 천적, 영적, 그리고 자연적인 것들로 구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다와 썰라’라는 교회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다와 썰라’는 일종의 새로운 교회의 도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아다’는 그 교회의 천적 영적인 것들의 어머니를, 그리고 ‘썰라’는 자연적인 것들의 어머니를 의미하지요.

라맥의 때, 곧 태고교회가 황폐해져

‘아다와 썰라는 어떤 교회였을까?’

서 더이상 교회 안에 주님 신앙이라는 게 사라진 상태까지 간 상황에서 그러나 주님에 의해 새 교회가 일어나는 것이, 마치 강원도 영월을 여러 날 새까맣게 불태웠던 숯검댕이 숲에서 그러나 이듬해 봄, 청초한 새싹이 돋아나는 것과 같습니다. 황폐한 땅에서 오히려 가장 청초한 새싹이 일어나듯 말이지요. 이는 주님의 신비요, 섭리이자 지혜요, 사랑이요, 능력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어느 때나 주님은 항상 이런 ‘남은 자’, 리메인스(*remains*)를 남겨두십니다. 시대뿐 아니라 교회도, 교회뿐 아니라 한 개인도 말입니다! 나중에 더 깊이 말씀드리겠지만, 노아 역시 그 시대 ‘아다와 썰라’요, 그 시대 리메인스, 곧 ‘남은 자’들이었습니다. 그 황폐한 시대에 그러나 오로지 주님 신앙으로 살아남았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들, ‘노아’라는 교회요,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아다와 썰라’가 그 새로운 교회의 천적, 영적, 그리고 자연적인 것들의 어머니이므로 그들의 자녀들인 ‘야발’과 ‘유발’, 그리고 ‘두발가인’과 ‘나아마’ 모두 그 어머니의 그 자식들, 곧 새 교회 안에 충만한 천적 영적, 그리고 자연적 선과 진리들이

겠지요 ^^

먼저 야발입니다. 야발에 관한 표현, ‘야발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cattle*)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라는 말씀의 속뜻은 사랑에 속한 거룩한 것들과 그로 말미암는 천적 선들에 관한 교리입니다. 다음은 유발입니다. 유발은 영적인 것들에 관한 교리를 의미하며, ‘수금과 통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라는 말씀의 속뜻은 신앙의 진리들과 선들입니다.

계속해서 두발가인과 나아마입니다.

두발가인에 관한 표현, ‘두발가인,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라는 말씀의 속뜻은 자연적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인데, 여기서 ‘구리’(놋쇠, 황동, *brass*)는 자연적 선을, ‘쇠’는 자연적 진리를 말합니다. ‘나아마, 두발가인의 누이’는 새 교회와 비슷한, 유사한 교회, 즉 그 교회 바깥에 있는 자연적 선과 진리에 관한 교리를 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이 교회는 처음 아담의 때, 태고교회의 시작 때 모습이었다가 점점 타락, 변질, 드디어 라멕의 때에 황폐해지기까지 하였으나, 그

창4:19-22, AC.405-426

‘아다와 쉘라는 어떤 교회였을까?’

그러나 주님은 이런 상황을 미리 예견, 영원하신 섭리를 따라 고이 간직, 잘 간수하여 두었던 ‘아다와 쉘라’라는 천적, 영적, 그리고 자연적 천국과 상응하는 새 교회를 일으키시며, 그 교회 안에 ‘야발과 유발, 두발가인과 나아마’라는 각종 선과 진리의 교리들로 가득하게 하셨습니다.

아담교회, 노아교회 및 모세교회, 그리고 기독교회로 오면서 주님의 이런 ‘아다와 쉘라’ 같은 리메인스들은 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보며, 교회를 보며, 그리고 우리 개인의 인생을 보며, ‘이젠 끝이구나!’ 좌절하고 절망할 때에도 주님은 그때마다 숨겨두셨던 리메인스들을 꺼내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되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기독교회에 대하여 교회 내부는 물론, 교회 밖 세상의 시선 역시 어둡고 캄캄합니다.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주인공 우영우가, 그러나 법에 관한 천재성을 발휘, 변호사가 되어 가슴 뭉클한, 넷플릭스로 방영되어 순식간에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이런 전 세계적 파급력을

가진 드라마에서 그러나 2화, ‘흘러내린 웨딩드레스’에 묘사되고 있는 기독교인의 모습에 저는 보면서도 참 안타깝고 난감했습니다. 동성애로 끝나는 걸 보면서도 기가 막혔고요...

네, 현재의 기독교회 역시 과거 각 교회 시대들이 종말을 고했던 것처럼 종말을 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다와 쉘라’처럼 우리 주님께는 다 계획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라멕의 편에 서는 대신, ‘아다와 쉘라’에 서서 ‘야발과 유발, 두발가인과 나아마’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요일3:18)

천적 영적, 그리고 자연적 천국들을 사모하여 그 천국의 모든 아름다운 것으로 교회와 이웃들에게 실천하는, 주님 사랑을 체어리티의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2022-07-31(D1)

한결같은교회 변일국 목사